

‘즉시 전력감’ 이동 K리그... 지각변동 예고

전북 신형민 재영입·대구 GK 구성은 합류 울산, 홍철 관심... 상위팀 순위 싸움 대비 2부리그 팀들 승격 향한 영입 ‘불꽃 경쟁’

개막 한 달여 만에 여름 이적시장을 맞이한 프로축구 K리그 팀들이 앞다퉀 전력 보강에 나서며 한층 뜨거워진 순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5일 2020 K리그 선수 추가등록을 시작한다. 각 팀이 새로 영입한 선수는 이날부터 등록을 거쳐 이번 주말 K리그(1부) 9라운드, K리그2(2부) 8라운드부터 뛴 수 있다.

이번 여름 이적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막이 늦어져 10경기도 치르지 않은 가운데 열려 어느 때보다 영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즉시 전력감’의 이동이 활발한 양상이다.

K리그 선두를 달리는 전북 현대

부터 ‘국가대표급 스쿼드’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중국 진출을 위해 팀을 떠났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불발된 신형민을 다시 불러들여 중원을 탄탄히 했고, 측면 자원 보강 가능성도 여전하다.

8경기 유일의 ‘무패(6승 2무)’ 팀인 2위 울산도 지난겨울 ‘폭풍 영입’에 이어 여름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 수원 삼성 주전인 홍철의 영입 조건을 알아볼 정도로 측면 수비수가 포인트다.

상위권 팀들도 앞차 영입으로 치열한 순위 다툼에 대비 중이다. 5월 무승에 시달리다 6월 4경기 무패(3승 1무)로 상승세를 탄 대구FC는 골키퍼

구성원의 합류로 힘을 받는다.

양쪽 주전 골백의 입대, 잇단 부상자 발생으로 고민이 깊던 포항 스틸러스엔 베테랑 오범석이 천군만마와 같다. 하위권 탈출이 시급한 팀들도 구명 난 부분을 메웠다.

성남FC는 2018년 K리그2 득점왕인 나상호(FC도쿄)와 6개월 임대 계약해 화력 상승을 기대한다. 성남은 8경기에서 5골에 그쳐 최하위인 천 유나이티드(3골)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다.

최다 실점(18골) 팀인 FC서울은 울산 센터백 윤영선 임대로 뒷문을 잠갔다. 서울은 수비 못지않게 ‘반공(5골)’도 문제라 제리치 등 국내에서 검증된 외국인 공격수에 관심을 두고 있어 반동의 발판을 만들지 주목된다.

6연패를 포함해 8경기 무승으로 최하위에 처진 인천 등도 영입이 필요한 팀이다. 인천은 외국인 공격수

케힌테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데 이어 주포 무고사도 발목을 다쳐 정상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출범 이래 최고의 관심 속에 승격을 향한 ‘불꽃 경쟁’이 시작된 K리그 2에서도 영입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수원FC는 태극에 진출했으나 코로나19 여파에 돌아온 미드필더 정재용을 자유계약으로 데려갔고, 전남 드래곤즈도 강원에서 미드필더 김현욱을 영입했다.

득점(11골)이 리그 상위권이냐 실점(11골)도 ‘최다 2위’에 해당하는 경남FC는 지난해 20세 이하(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인 울산의 측면 수비수 최준을, 서울 이랜드는 전북의 미드필더 장우호를 임대했다.

‘불안한 선두’ 대전하나시티즌도 독일 2부 분데스리가 출신자인 킬의 측면 수비수 서영재와 외국인 공격수 영입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옆치락 뒤치락’ 현대 집안 선두싸움

28일 K리그1 9R 첫 대결 패할 경우 추격에 애먹어 전북 이동국 출전 불투명

올해 프로축구 K리그1 최고의 빅매치들이 이번 주말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다. 코로나19로 2개월여 늦게 출발한 K리그1은 8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지난해 준우승팀 울산 현대의 ‘현대가(家) 2파전’ 양상이다.

전북이 승점 21(7승 1패)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울산이 개막 8경기 무패(승점 20·6승 2무)로 2위다.

시즌 초반에는 울산이 선두를 달렸지만 곧바로 전북이 뒤집으면서 두 팀의 치열한 선두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옆치락뒤치락’ 1위 싸움 속에 전북과 울산은 28일 K리그1 9라운드에서 시즌 처음 대결을 펼친다.

두 팀은 지금까지 승점 차가 2점 이상 벌어진 적이 없다. 울산으로선 자칫 패할 경우 승점이 4점 차로 벌어져 추격에 애를 먹을 수 있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

전북과 울산은 28일 오후 6시 울산문수구장에서 9라운드를 펼친다. 울산은 지난해의 실수를 되풀이하

지 않기 위해 ‘벤치 멤버도 국가대표급’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전력을 보강했다. 덕분에 울산은 개막 8경기 무패와 더불어 12개 팀 가운데 최다득점(19골)과 최소 실점(4실점)을 기록하며 전북과 치열한 선두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통산 전적에서 두 팀은 36승 26무 35패로 비슷했지만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에는 전북이 13승 10무 4패로 앞선다.

울산의 ‘믿을맨’은 단연 주니오다. 주니오는 8경기 동안 9골을 몰아쳐 득점 단독 선두다. 여기에 K리그1 ‘스피드왕’ 김인성(2골)을 비롯해 중원의 조율사 윤빛가람(2골), 11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이경용(2골)까지 공격진도 화려하다.

이에 맞서는 전북은 지난해보다 전력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지만 공격 구역을 넓혀 ‘구역속 전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8경기에서 13골로 울산보다 적지만 울산과 똑같이 4실점에 그쳐 공수 밸런스가 좋다.

이동국이 4골로 팀 최다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컨디션이 뛰어난 한교원(3골)이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이동국이 지도자 교육 참가로 25일야하 합류할 예정이어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손흥민 8호 도움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R 홈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웨스트햄의 토마 수핵과 헤딩 경합을 하고 있다. 후반 37분 역습 상황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케인을 향해 전진 패스를 건네 골키퍼와 일대일 전승을 안고, 케인은 침착하게 슈팅해 득점했다.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었지만, 비디오판독(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득점이 취소됐다. 연합뉴스

양의지 NC에 우승 DNA 심기 본격

FA 이적생에서 주장으로 소중한 경험 아낌없이 전수

포수 양의지(33·사진)가 ‘자유계약 선수(FA) 이적생’에서 ‘주장’으로 NC 다이노스에 완벽히 녹아들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팀에 ‘우승 DNA’를 심기 시작했다.

2019년 시즌을 앞두고 4년 총액 125억원에 FA 계약으로 NC에 합류한 양의지는 2018년 끝까지 팀이 와일드카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이적 2년 차에는 주장을 맡았다. 양의지는 올해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NC는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며 목표에 접근하고 있다.

양의지는 포수로서, 중심타자로서, 주장으로서뿐 아니라 ‘우승 경험자’로서 동료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

양의지는 두산 베이스에서 2015·2016·2019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경험했다. NC와 한국시리즈에서 만났던

2016년에는 두산의 4전 전승을 이끌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도 차지했다.

양의지는 두산에서 ‘다양한 우승’을 겪었다. 2015년에는 준플레이오프에서 시작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뒀고, 2016년에는 ‘판타스틱4’로 대변되는 막강한 전력을 내세워 압도적으로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2019년에는 9경기 차 열세를 뒤집어 SK 와이번스를 제치고 정규시즌 1위를 차지, 한국시리즈에 직행해 우승까지 거머쥔 대역전극을 만들었다.

양의지는 “두산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이겨내 감동이 된 것 같다. 후반에 좋은 흐름을 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두산이 압도적인 1등을 했을 때는 ‘우리를 이길 팀이 없다’는 자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두산 시절 늘 전력의 핵심이었던 양의지는 이소중한 경험을 NC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MLB 막 오른다... 7월 24일, 25일

팀당 60경기 초미니 시즌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격돌

파행으로 치달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드디어 올해 정규리그의 막을 올린다.

MLB 사무국의 톰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메이저리그가 7월 24일 또는 25일(한국시간)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된 메이저리그는 대만(4월), 한국(5월), 일본(6월)에 이어 프로야구가 성행하는 나라 중 4번째로 2020년 정규리그의 막을 올린다.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발표에 앞서 MLB 선수노조는 이날 정규리그 개막을 준비하기 위한 7월 2일 팀 훈련 소집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MLB 사무국에 전달했다.

올 시즌은 MLB 사무국과 구단의 주장대로 팀당 60경기의 초미니 시즌으로 축소돼 치러진다. 이동을 최소

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양대리그 같은 지구 팀끼리만 격돌한다.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최지민(29·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은 같은 리그 동부지구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5개 팀 고고만 정규리그를 벌이는 식이다.

추신수(38·텍사스 레인저스)도 서부지구 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은 중부지구 팀고고만 정규리그에서 대결한다.

대부분의 구단은 정규리그 홈구장에서 7월 2일에 모여 정규리그를 대비한 2차 스프링캠프를 치를 참이다.

MLB 노사는 연봉 지급 문제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의 직권으로 리그의 문을 연다. 예년의 37%에 해당하는 경기만 치르므로 선수들도 원래 정해진 연봉의 37%만 가져간다. 경기 일수로는 이동 일을 포함해 66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경기 일정과 포스트시즌 진행 방식 등은 다음에 발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6·25 전쟁 70주년 기획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이윤집 찰스(재) 11:50 아생여정 플러스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뉴스타임 9:00 기막힌 유산(재) 9:40 무한리얼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영혼수선공(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이 맛에 산다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5 930 MBC 뉴스 9:50 제주 애 가버 10:10 6·25 70주년 참전기념식 11:00 사색의 공동체 스미다 스페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얼마가 바람났다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행이 보인다	7:30 뿌로로와 노래해요 8:00 당당맨 유치원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가행 12:25 씨름의 모든 법칙 15:25 띠띠뽀 띠띠뽀 15:55 도깨비가족 16:10 레인보우 루비 16:40 당당맨 유치원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9:45 자이언트 펭TV
12:00 KBS 뉴스 12 13:00 사림의 가족 13:50 KBS 재난방송센터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테러루 테디베어 미움의 비밀 14:45 아가씨아 울리 뚜루뚜루 15:00 출동! 유우구조대 15:30 영상앨범 산 16:00 시사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인간극장 스페셜 1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5: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15:30 TV 유치원 플러스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풋볼 2 17:15 캐치! 티니핑 17:30 주간연예수첩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6·25 70주년 특집다큐 백두산탐사서 독도함까지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헬리콥터 아하! 동물탐험대 3 16:00 기본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30 끈대인턴(재)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편의점 셋백이(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뉴스 17:15 JIBS 뉴스 17:30 행복설계 일짜배기(재)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덕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참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시사매거진 정통입니다 21:35 라디오간전 22:05 채신아의 가스펠 아워
18:00 6·25전쟁 70주년기획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50 6·25전쟁 70주년기획 한국의 밥상 20:40 중계방송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21: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40 6·25 전쟁70주년기획 다큐 인사이드 23:35 송터 23: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험한 약속 20:30 글로벌24 20:55 나는 어떤 개와 산다 22:00 영혼수선공 22:35 영혼수선공 23:10 살림하는 남자들(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특집 MBC 뉴스데스크 20:35 중계방송 6·25 전쟁70주년 추념식 23:00 테마여행 길	18:30 올레길 놀림수령 길다보면 19:00 행복추진 해피타임 19:30 특집 SBS 8 뉴스 20:15 JIBS 8 뉴스 20:35 중계방송 6·25전쟁 70주년 추념식 '영웅에게' 22:00 맛있는 광장 1부 22:40 맛있는 광장 2부 23:10 맛있는 광장 3부 23:40 편의점 셋백이(재)	KCTV 7:00 KCTV 뉴스 8:30 해리의 양장점 시즌1 9:30 제주도립사쿠포관악단 10:30 제주어 탐구생활 벌떼시대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10 마이애 공공해오 시즌2 17:00 KCTV 뉴스 18:00 다문화코미디극 공무원 나대기 18:30 해리의 양장점 시즌1 19:00 KCTV 뉴스7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5일

김홍상 지단(CEO) 직영역력연구소
경기도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주변 협조도 좋은 일이 온다. 음식은 주의. 48년 주유업, 서점, 출판인쇄업은 활기를 얻는다. 60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 증가. 72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이득이 생기거나 훗날 결과가 있다. 84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기니 이성 교제는 신중.

37년 대세를 따르면 편하나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출현해 경쟁한다. 49년 자기 운신의 폭을 넓히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61년 작은 일이라도 작심하고 실천하면 그 결과가 좋다. 73년 사소한 일에 참견 시 큰 다툼이 되니 나서거나 간섭하지 마라. 85년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으니 사이버활동도 권장.

38년 연락을 취하면 상대와 만나게 된다. 50년 휴식이 필요하고 건강도 체크해 보자. 62년 문상 또는 방문할 일이 생기니 정장을 미리 준비하고 나가야 좋다. 74년 대인관계에 신뢰가 필요하니 약속이 생기면 거절하지 말고 이행하라. 86년 예정관계에 급이 가거나 마찰이 오니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39년 함께 일을 해야 하거나 도와줄 일이 생긴다. 51년 문제가 생기면 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해결하라. 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63년 자녀 가족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근심이 생긴다. 76년 미용, 악세사리에 관심이 많고 구매충족이 강하게 나타난다. 87년 활동이 분주하고 갈 곳이 많다. 서쪽이 길.

40년 관례에 이상이 오거나 신경통이 생긴다. 52년 매매 문서 또는 재물을 이익이 오고 동북간이 행운방위. 64년 내 뜻이 맞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라. 자격증 취득도 좋다. 76년 양보다 절이 우선 시 되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88년 할 일을 마무리 하지 않으면 반쪽을 산다. 미루지 않는 습관 필요.

41년 거러나 계약관계로 소식이 찾아온다. 53년 남모르게 선행할 일이 생기거나 도움줄 일이 생긴다. 65년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오고 있다. 77년 연변 화술쪽이 상대를 편안케 해주니 인기가 최고로 빛난다. 89년 나의 능력을 주위에서 인정하도록 고민하라.

42년 자녀에 관한 문제나 집안문제 불화가 오니 아침부터 부지런해야 한다. 54년 술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음주 시 운전 금지. 66년 상사의 추천 도움 있거나 사업자는 금전운이 좋아진다. 78년 봉사활동이나 여행할 일이 다가온다. 90년 어떤 직업이라도 있다면 기운이 솟는다.

43년 작은 이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55년 자신감이 있어도 자만함을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67년 목격하는 것이 있으면 노력해 실력을 인정 받으려 한다. 79년 의류업과 이미지관리업은 인기가 증가한다. 91년 갈 곳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지갑에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44년 매매 문서 또는 서류와 관련된 일은 유리. 금전적 지출이 발생. 56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행동을 조심하라. 68년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면 자격을 갖도록 하는 일을 찾거나 시작하라. 80년 결혼 또는 상견례 등으로 바쁘거나 소개 증매가 성사된다. 92년 절도 있는 행동과 인간관계에 너그럽음이 요구.

45년 수산업·청과물 분야 이익이 호전된다. 57년 내 몸이 분주하고 손이 바빠진다.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69년 미혼자에게는 이성이 필요하고 기혼자는 자녀에 관한 기쁜 소식이 생긴다. 81년 직업을 기질 수 있으며 시험 등에 좋은 소식이 있다. 93년 이사, 문서상 변동운이 오거나 자녀의 일로 걱정한다.

46년 슬픔과 기쁨을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58년 엔지니어 또는 기술을 요하는 업은 분주하다. 70년 문서 매매 변동운 또는 직업인은 활동이 분주해진다. 82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부모님께 안부전하나 찾아보는 것이 마음 편하다. 94년 형제자매의 혼사나 상견례가 이뤄지거나 모임 참여 할 일이 있다.

47년 귀가 늦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음주는 자제할 것. 59년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기도한 성실한 책임관수가 중요. 71년 집안식구나 친지들의 문제 소식을 접하며 금전소실이 있다. 83년 일이 풀리지 않던 사람은 일이 호전되고 이성 또는 친구교제가 발생. 95년 변화를 주려고 하며 장영, 동업을 하려 한다.